

異文化の表象から感じる自文化

著者	金 時徳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158-171
発行年	2000-07-24
URL	http://doi.org/10.15021/00002227

異文化の表象から感じる自文化

金時徳（韓国国立民俗博物館）

1.はじめに

民族学（人類学）博物館に展示している異文化の様子は、展示を担当した人々の考えにより構想化される。展示企画チームが一つの文化体（国家・地域を問わず）をいかに考え、いかに表現するかという過程と結果が民族学博物館の展示として現れるのである。大阪国立民族学博物館（以下、民博とする）の「朝鮮半島の文化」展示もこのような結果の一つである。

民博では、既存の「朝鮮半島の文化」展示を新たに改装するため、1997年から『「もの」を通して見た朝鮮民俗文化』という共同研究会（研究責任者、朝倉敏夫）を1999年まで行った。この共同研究会は、日本で韓国文化を研究する専門家はもちろん、美術館・博物館の専門家で構成されていた。展示企画者は、この研究を通じて多方面の意見を受け入れた。また、韓国の国立民俗博物館の学芸研究員を一年間招聘し、展示企画に参加させた。したがって、この展示は企画段階から展示担当者の一方的な考えで行われたのではなく、多方面の意見を受け入れるかたちで進められたのである。その結果、展示企画者により一方的に一つの民族の文化が表象される、既存の民族誌展示が持っていた危険性を排除できたと考えられる。

既存の「朝鮮半島の文化」展示が、異文化の発見という側面から韓国文化をいかに理解しているかという民族学的（人類学的）関心にとどまっていたとすれば、新たな展示は朝鮮半島という異文化を「もの」という有形資料を通じていかに表象するかということに焦点があてられていた。したがって本稿では、既存の民族誌展示の反省すべき課題が、「朝鮮半島の文化」展示を通じていかに解決されていったのかをみるのが目的である。もちろん、博物館学的な立場、とくに民族学博物館の展示発達過程を論議するのではない。最近、台頭している民族学博物館の展示方法に対し提起される批判と結びつけ、「朝鮮半島の文化」展示を行ってきた過程を通じて既存の民族誌展示の問題点をいかに解決しているのかを考えようとする。また、民博に展示した「朝鮮半島の文化」という「異文化の展示」で、「展示される文化に属する展示される者」の一人として感じる自文化を記述しようと思う。

異文化의 表象에서 느끼는 自文化

金時德(韓國國立民俗博物館)

1. 머리말

민족학(인류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異文化의 모습은 당시 전시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구상화된다. 전시기획팀이 하나의 文化體(국가이든 지역이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과정과 결과물이 민족학박물관의 전시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이하 민박)의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 역시 이러한 결과물의 하나이다.

민박에서는 기존의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를 새로 개장하기 위해 1997년부터 “물건을 통해 본 조선 민속문화”라는 공동연구회(연구책임자 : 朝倉敏夫)를 1999년까지 진행하였다. 이 공동연구회는 일본에서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물론 미술관, 박물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기획자는 이 연구 모임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를 1년 간 초청하여 전시기획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전시는 기획단계부터 전시담당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진행되었기보다는 다방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시리더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나의 민족문화가 表象되는 기존의 民族誌展示가 가지고 있었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가 異文化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민족학적(인류학적) 관심에 머물러 있었다면, 새로운 전시는 조선반도라는 異文化를 물건이라는 유형자료를 통해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民族誌展示가 반성해야할 숙제들을 ‘조선반도의 문화’라는 전시를 통해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박물관학적인 입장, 특히 민족학박물관의 전시발달과정을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민족학박물관의 전시방법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들과 결부시켜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를 진행해 온 과정을 통해 기존의 民族誌展示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 또한 일본의 민박에 전시된 조선반도의 문화라는 ‘異文化의 전시’에서 ‘전시되는 문화에 속한 전시되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느끼는 自文化를 기술하고자 한다.

2. 展示する者と展示される者との対話

16 世紀から 17 世紀にかけ、王侯貴族が自分の邸宅に珍品陳列室 (Cabinets of Curiosities) を競って立て始めたのが博物館学の始まりとみられる。このような現象は自己の周辺で接することが難しい異国の珍奇なものをみせることによって異文化を発見する時代であった。19 世紀に人類学が学問の一つと位置づけられることによって、教育の一環として民族学博物館が誕生するようになった。民族学博物館の誕生は、世界の発見という異文化の発見から民族誌展示を通じて異文化を表象する段階に転換する。そのうえ、最近では固定展示 (常設展示) を通じて異文化を総合的に表象することは難しいとする認識論もでてきている [吉田憲司 1999:56]。

吉田憲司によると、異文化を展示する民族学関係の博物館の展示は、大部分が異文化の発見という観点から展示が行われたため、植民地人類学的な見地の展示が行われたと批判している。この対案として、展示をする者と展示される者との共同作業、展示をみる者との対話を通じた展示を行うことが、自文化の中心的な方法で異文化を展示する過ちを犯さない方法であるという [吉田憲司 1999:26]。

このような立場からみると、新たな「朝鮮半島の文化」展示は、展示する者である日本民族学 (具体的には展示企画者) と展示される者である韓国人との対話を通じて完成したといえる。それはまず第一に、展示準備と企画のため、韓国の国立民族博物館の学芸研究員を一年間招請し、ともに展示企画を行ったという事実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その対象であった筆者は、1998 年 12 月から 1999 年 12 月まで一年間、展示のため共同研究会に参加することはもちろん、展示企画過程に直接参加した。もちろん、「墓制の日韓比較研究」という筆者の研究テーマがあるため、すべての面で展示に専念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展示企画への協力をするようになった。筆者が参加した当時はすでに展示に対する構想が確定されていたため、部分的に助言をする程度にとどまったが、企画者が自分の意図を具体化し、決定するのに微力ながら力になった。

もし、筆者が展示企画者の展示意図を筆者の思うとおりに進めていくよう要求したとするならば、この展示はすでに異文化の表象ではなく、筆者の自文化を表象するという深刻な問題を招いただろう。展示に参加することでどのくらいの影響力があったかよりは、展示される文化に属した者との対話を通じて展示をしようという意図に、大きな意義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前述したように、自文化中心的に他文化を一方的

2. 전시하는 자와 전시되는 자와의 대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왕후귀족들이 자신의 저택에 珍品陳列室(Cabinets of Curiosities)을 경쟁적으로 세우기 시작한 것을 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의 효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진기한 물건들을 보여줌으로서 ‘異文化를 발견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인류학이 학문의 한 갈래로 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의 일환으로 민족학박물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민족학박물관의 탄생은 세계의 발견이라는 異文化의 발견에서 民族誌展示를 통해 異文化를 표상하는 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정전시(상설전시)를 통해 異文化를 총체적으로 표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론도 나오고 있다[吉田憲司 1999:56].

吉田憲司에 의하면 異文化를 전시하는 민족학관계 박물관의 전시는 대부분이 異文化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민지인류학적인 견지의 전시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전시를 하는 자와 전시되는 자와의 공동작업, 나아가 전시를 보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한 전시가 이루어질 때 自文化중심적인 방법으로 異文化를 전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다[吉田憲司 1999:206].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의 경우 전시하는 사람인 일본민족학(구체적으로는 전시리더)과 전시되는 사람인 한국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전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전시준비와 기획을 위해 1년 간 한국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사를 초청하여 함께 전시기획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대상이었던 필자는 1998년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1년 간 전시를 위한 공동연구회에 참가함은 물론 전시기획 과정에 직접 참가하였다. 물론 한일 幕制의 비교연구라는 필자의 연구테마가 있어 전적으로 전시에 전념할 수 없었지만, 전시기획에 참가하면서 간섭 아닌 간섭을 하였다. 물론 필자가 참가했을 당시는 이미 전시에 대한 구상이 확정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언을 하는 정도였지만, 기획자가 자신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결정하는 데에 작지만 도움이 되었을 생각한다.

이는 만약 필자가 전시리더의 전시의도를 필자의 생각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 전시는 이미 異文化의 표상이 아니라 필자의 自文化를 표상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전시에 참가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가리기보다는 전시되는 문화에 속한 사람

に評価してきた展示方法の問題を知り尽くし、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試みがあったということに意義があるといえる。

第二に、パティオに酒幕を展示するために現地の事業者を展示の施工に協力依頼した点である。「もの」との対話を重視する民博で、展示される文化に属する展示施工業者が展示に協力することで、「もの」の裏に隠れている文化的脈絡を十分にみ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考え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展示企画者である朝倉敏夫は、酒幕を展示することに対し、情報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ターミナル・余興を楽しむ娯楽の場・文化伝達のターミナルとしての役割を酒幕の機能を活かすことで、イベントを通じての単純な休憩場ではなく、「対話の場」として活用しようとした。また、オンドルの暖かさを体験できる機能を活かそうとした[朝倉敏夫 2000:20]。従来の一方向的な展示のため展示されるものは沈黙を強いられた時代ではなく、双方向的な異文化の接点として民博の出発を意味することと評価できる。また、そのうえ展示をみる人々同士の対話、異文化の体験空間としての役割までも念頭においた展示企画であった。

第三に、「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というシンポジウムである。展示を行う過程で、展示される者との対話で満足するだけでなく、この対話がいかに展示に適応したかを評価する場をつくったことは、現在の展示だけではなく今後の展示に反映しようとする意図が内包されているため、意義が大きいといえる。

展示される者が、展示される者との対話を試みることは民族誌展示において自文化中心的な視点では異文化を総合的に表象できない反省が背景にあっただろう。単純な異文化発見の次元ではなく、あるいは展示する者とされる者との対話、ひいては展示を見る人との対話を通じて、さらに効果的な展示が可能になるための装置とみられる。それは Cameron がいった Forum としての博物館を指向することであるといえる[吉田憲司 1999:208<再引用>]。

3.民博が設定した韓国文化の表象

民博が「朝鮮半島の文化」に対して展示することは、基本的には日本の民族学、あるいは日本の博物館民族学の学問的視野を基礎としている。展示するものとして、今回の展示企画者（日本の民族学者としての立場）が考えている朝鮮半島文化の姿が「朝鮮半島の文化」展示そのものであるだろう。もちろん展示方法により、その姿は異なっても朝鮮半島の文化に対する視角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과의 대화를 통해 전시를 하겠다는 의도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自文化중심적으로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평가해왔던 전시방법의 문제를 간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는 파티오에 주막을 전시하기 위해 현지의 사업자를 전시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물건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민박에서 전시되는 문화에 속한 전시사업자가 전시를 할 경우 물건 뒤에 숨어있는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배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시리더 朝倉敏夫는 주막을 전시한 데 대해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터미널·여흥을 즐기는 오락의 장·문화전달의 터미널 역할을 했던 주막의 기능을 살리고 이벤트를 통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온돌의 따뜻함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려고 한다”고 하였다[朝倉敏夫 2000:20]. 종래의 일방적인 전시로 인해 전시되는 자는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시대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異文化 접촉의 장으로서 민박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를 보는 사람과의 대화, 나아가서는 異文化의 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염두에 둔 전시기획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셋째는 ‘일본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표상’이라는 심포지엄이다. 전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시되는 자와의 대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얼마나 전시에 적용되었는가를 평가받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현재의 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시에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의의가 크다.

전시하는 자가 전시되는 자와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民族誌展示에 있어서 自文化중심주의적인 안목으로는 異文化를 총체적으로 표상하지 못한다는 반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단순한 異文化 發見의 차원이 아니라, 혹은 전시하는 자와 전시되는 자와의 대화, 나아가 전시를 보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좀더 효과적인 전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말하자면, Cameron이 말한 Forum으로서의 박물관을 지향하는 모습이라 하겠다[吉田憲司 1999:208 재인용].

3. 민박이 설정한 한국문화의 표상

민박이 ‘조선반도의 문화’에 대해 전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민

民博の展示全体がそうであるように、「朝鮮半島の文化」展示も民族誌展示を通じた韓国文化の表象を前提にしている。1983年に最初に展示公開された朝鮮半島の展示は、祖父江孝男が「この地域の展示の基本プリンシプルとしては、現代の韓国の精神生活における二つの基本的な枠組となっている“民間信仰”と“儒教”の二つを大きな柱とし、それらの間に衣食住の物質文化を配列して、韓国の文化の構造を示すようにつとめた」[祖父江孝男 1984:299]といったように、精神と物質という基本的な構造を韓国の文化とみて、これを満足させようという意図があった展示であった。

2000年3月に公開された展示の特徴は、展示企画者である朝倉敏夫による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構想によく現れている。伝統を過去の残滓ではなく、現在の視点で活動する文化的な力として「意味ある過去」と規定することにより、伝統こそが韓国社会の現代文化であると規定する視角に現れるように、韓国文化の重層性をコーナー別に展示することで既存の構造展示から疎外されていた通時性を強調し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とくに、子供の文化を展示するため配置した「子供部屋」にかけてあるハングル展示は、画期的な発想であると思われる。韓国の国立民族博物館の第1展示室の奥にハングル創製という展示コーナーがおかれている。そこにはハングルの起源と子音と母音の原理・他言語との比較展示をしている。韓国でハングルを展示することは自文化としてのハングルの原理・世界的分布状況（もちろん、海外に居住する韓人が使うハングルである）・ハングルの歴史・優秀性などをみせるための展示である。しかし、民博のハングル展示はハングルの言語学的分析をもとにした展示ではないとしても、韓国という国がハングルを使っている国であることを知らせるには十分である。

有形資料を中心とした展示をする博物館で、もっとも困難な部分が無形アイテムの展示である。もちろん、映像や写真、音響を通じて展示することはできるが、「もの」を中心とする博物館においてははまだ相当な困難に直面している。無形アイテムの展示は、理論的には展示の妥当性が認められるが、展示という行為としての表現が困難なため、相当な部分で排除されてきた。しかし、民博のハングル展示は、他者の目からみる韓国文化の表象として朝鮮半島の文化に固有の言語があることを表象している。民博のハングル展示は、韓民族の固有な言語であるハングルを使っていることを表象するための展示ではなかった。展示コーナーの名称からもわかるように、子供の生活文化をみせるためにつくった「子供部屋」にかけてある基礎的なハングル教育教材を展示している。子供がハングルを覚えるため、額縁（あるいは掛け軸）のよう

족학, 혹은 일본의 박물관민족학의 학문적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시하는 자로서 이번 전시의 기획자(일본민족학의 입장)가 보고 있는 조선반도문화의 모습이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물론 전시 방법에 따라 그 모습은 다르게 보일지라도 조선반도의 문화에 대한 시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민박의 전시 전체가 그렇듯이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 역시 民族誌展示를 통한 한국문화의 표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83년에 최초로 전시 공개된 조선반도의 전시는 祖父江孝男가 “이 전시의 기본 원칙은 현재의 한국 정신생활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는 ‘민간신앙’과 ‘유교’를 축으로 하여, 그 둘 사이의 의식주 물질문화를 배열함으로써 한국문화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祖父江孝男 1984:299]고 한 것처럼 정신과 물질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한국문화로 보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전시였다.

2000년 3월에 공개된 전시의 특징은 전시기획자 朝倉敏夫의 ‘신한반도 문화전시의 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전통을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힘으로서 ‘의미있는 과거’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이 야말로 한국사회의 현대문화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드러나듯이 한국문화의 重層性을 코너별로 전시함으로써 기존의 구조전시에서 소외되었던 통시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아이들의 문화를 전시하기 위해 배치한 ‘아이들방’에 걸려 있는 한글전시는 획기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 제1전시실 끝 부분에 한글창제라는 전시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거기에는 한글의 기원과 자모의 원리, 타 언어와의 비교전시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글을 전시하는 것은 自文化으로서 한글의 원리, 세계적 분포상황(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이지만), 한글의 역사, 우수성 등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이다. 그러나 민박의 한글 전시는 비록 한글의 언어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전시는 아닐지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문화를 전시함으로써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리기에는 충분했었다.

유형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행위를 펼치고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형적인 아이템의 전시이다. 물론 영상이나 사진, 음향을 통해 전시할 수는 있지만, 물건을 중심으로 한다는 박물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론적으로야 전시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전시라는 행위에서 표현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배제되어

に、壁に掛ける非常に簡単な資料を通じて韓国の固有言語を展示する副次的な効果を得ている。

4.異文化の表象から感じる自文化

常設展示だけで異文化を総体的に表象できないため、これを補完するため特別展あるいは企画展というかたちの補助展示手段が使われている。民博の「朝鮮半島の文化」展示室では、韓国文化の全般を表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うとって韓国文化の根幹を表象できるわけでもない。しかし、この展示を通じて韓国文化を研究する一人として振り返ってみたいといけないことを提示しようと思う。

第一に、現代文化の展示と研究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事実、韓国人として韓国文化を研究する研究者は多いが、現代文化を民族学的あるいは民俗学的観点から研究する研究者が少ないことから問題が生じている。韓国では、1960年代に生産されたアルミニウムの鍋・プラスチックの製品などはどこの博物館にも収集されていない。むしろ収集対象にならなかったという表現が妥当であるだろう。1999年、韓国の国立民族博物館では「20世紀の懐古と展望」という特別展を通じて、このような資料の不足を切実に感じている。そのため、現代文化に対する研究が、民俗学や人類学で一日も早く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に、現在の韓国の宗教文化に対する研究の必要性を悟らせてくれた。いまだに世界の諸民族において、宗教はその民族あるいは国家のイデオロギーとして作用している。世界的な雑誌に登場する「キリスト教天国」韓国というタイトルを証明するように、ソウルの夜景は赤い十字架で染まっている。外国人が韓国の夜景をみてこのように思っても仕方がない現象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韓国の文化論者は儒教が韓国文化を支える支柱のようにすべてを儒教と結びつけて論議していく。実際に都市にも農村にも教会がないところはなく、キリスト教的なイデオロギーが相当一般化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研究報告書にはそのような現象に対する論議が排除されてきた。Emic Mentalな調査研究に傾いたのであろう。そのような点から、「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現代文化のコーナーにキリスト教・仏教という現代宗教文化の面積が大きく占めた理由を、現代の宗教文化に対する接近が切実に必要であるという展示企画者の強い主張として受け入れるべきであるだろう。これこそ、現在の韓国文化のありのままの姿であるかもしれないからである。

第三に、「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と「在外韓国人の文化」の展示という今後の展

왔었다. 그러나 민박의 한글 전시는 타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문화의 표상으로서, 한반도 문화에서 고유 언어가 있음을 표상하고 있다. 민박의 한글 전시는 한민족이 고유한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상하기 위한 전시는 아니었다. 전시코너의 명칭에서도 보이듯이 아이들의 생활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아이들의 방’에 걸려 있는 기초적인 한글 교육 교재를 전시하고 있다. 아이들이 한글의 자모를 익히기 위해 액자(혹은 족자)처럼 벽에 걸어 놓는 매우 간단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고유언어를 전시하는 부차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겠다.

4. 異文化의 표상에서 느끼는 自文化

상설전시만으로 異文化를 총체적으로 표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전, 혹은 기획전이라는 형태의 보조전시 수단이 동원되고 있음은 박물관의 주 전시활동처럼 되어 있다. 민박의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실 하나로 한국문화 전반을 표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국문화의 근간을 표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전시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될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대문화의 전시와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한국문화를 연구(Emic Approach)하는 연구자는 많으나 현대문화를 민족학적, 혹은 민속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에 생산되었던 알루미늄 냄비, 플라스틱 제품 등은 어느 박물관에도 수집되어 있지 않다. 아니 수집대상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타당할 것이다. 1999년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세기 회고와 전망이라는 특별전을 통해 이러한 자료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문화에 대한 연구가 민속학이나 인류학에서 하루 빨리 시도되어야 하겠다.

다음은 한국에서 현재 한국의 종교문화에 대한 및 연구의 필요성을 깨우칠 수 있게 해 주었다. 아직도 세계 제 민족에게 있어 종교는 그 민족 혹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가끔 세계적인 잡지에 등장하는 ‘기독교천국의 나라 한국’이라는 타이틀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울의 야경은 온통 붉은 색 십자가로 물들어 있다. 외국인이 한국의 야경을 보고 이러한 말을 할 법도 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론자들은 유교가 한국문화를 지탱하는 지주처럼 모든 것을 유교와 결부시켜 논의를 풀어간다. 실제로 도시건 농촌이건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示に対する討論司会者として弁を述べる。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は、これが植民地経験の遺産であるのか、産業化の産物であるのか区別が難しい。それほど複雑に融合してしまっている。例を挙げると、印刷所に残っている多くの日本語、建築現場で使われている日本語、日常生活で使われている日本語式英語などが植民地の遺産なのか、あるいは産業化の過程の産物であるかという問題である。これらの区別が可能か否かも疑問である。しかし、共同研究会を構成し、これに対する体系的な調査研究を行えば不可能でもない。これに対する共同研究会は必ず日韓共同研究会として構成されるべきである。客観的な視点と主観的な視点が折衷になるからである。十分な研究成果がでた後、これに対する展示活動が進展されると思われる。事実、研究活動の前に展示することは功罪の問題があるため、下手に始めてよい議論ではない。そのため、これに対する共同研究が切実に要求されるのである。

韓国の国立民俗博物館では、4年前から10年計画で海外に居住する韓人の生活文化に対する調査研究を行っている。すでに中国地域の調査研究を完了し、中央アジアの調査研究を進めている。今後、日本、アメリカなど年次的に継続されるだろう。このような調査は、数多く有形資料を収集できる機会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会計法などの制約のため有形資料の収集が困難な状態であった。今後は最小限、収集可能な資料の目録だけでも収集されるべきだろう。

博物館に勤務しているキュレーターとしては、展示を行うとき、私個人の考えだけで展示を行うことが多かった。これは周辺の多様な意見を聞くと展示対象として選定されたアイテムが持っているもっとも重要なメッセージより副次的なものが浮上してしまうという理由から他の意見を排除した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展示のための仮想展示と実際のディスプレイの間には相当な溝があったことも事実である。しかし、新たに改装された「朝鮮半島の文化」展示は、展示する者と展示される者と双方向の対話を越え、展示をみる者との対話・体験博物館としての機能を持つ展示であると評価する。これは、民博が行ってきた重点研究プロジェクトの一つである「文化表象の博物館人類学的研究」とともに、日本の博物館民族学の蓄積された研究成果と研究方向の実体をみせていると理解している。

参考文献

朝倉敏夫 2000「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国立

는 논의를 배제해 온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Emic Mental한 조사연구에 치중한 탓으로 돌리고 싶다. 그런 면에서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에 펼쳐진 현대문화라는 코너에 전시된 기독교, 불교라는 현대 종교문화의 면적이 크게 자리한 이유를 현대의 종교문화에 대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시기획자의 강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현재 한국문화의 본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화’와 ‘재외 한국인의 문화의 전시’라는 앞으로의 전시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간 사회자로서의 변을 늘어놓고자 한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문화는 이것이 식민지 경험의 유산인지 산업화의 산물인지 구별이 모호해질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뒤섞여 버렸다. 예를 들면, 하리꼬미(張り込み) 등 인쇄업에 남아 있는 무수한 일본어, 건축현장에서 쓰이는 일본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식 영어 등이 과연 일본 식민지의 유산인가 아니면 산업화 과정의 산물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의 구별이 가능할지의 여부도 의문이다. 그러나 공동연구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에 대한 공동연구회는 반드시 한일공동연구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시각과 주관적인 시각이 절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연구성과가 도출된 후, 이에 대한 전시활동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의 전시 및 연구활동에 앞서 공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에서 선불리 시작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4년 전부터 10년 계획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미 중국 지역의 조사연구를 완료하였고, 중앙아시아의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아메리카 등 연차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수많은 유형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유형적 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제부터는 최소한 수집 가능한 자료의 목록이라도 수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진행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으로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이는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전시대상으로 선정된 아이템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보다 부차적인 것이 부각되어 버린다는 이유로 타의 의견을 배제했던 것이

民族学博物館

祖父江孝男 1984「東アジア(朝鮮半島の文化)展示」『国立民族学博物館十年史』

国立民族学博物館

吉田憲司 1999『文化の発見』岩波書店

다. 뿐만 아니라 전시를 위한 가상전시와 실제 디스플레이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 개장된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는 전시하는 자와 전시되는 자의 쌍방향의 대화를 넘어서 전시를 보는 자와의 대화, 체험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겸비할 자세를 갖춘 전시로 평가하고 싶다. 이는 민박이 진행해 온 중점연구프로젝트의 하나인 ‘文化表象の博物館人類學的研究’와 함께 일본의 박물관민족학의 축적된 연구성과임과 동시에 연구방향의 실체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참고문헌

- 朝倉敏夫 2000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 『日本における韓國文化の表象』
國立民族學博物館
- 祖父江孝男 1984 「東アジア(朝鮮半島の文化)展示」
『國立民族學博物館十年史』國立民族學博物館
- 吉田憲司 1999 『文化の發見』岩波書店